

추석 가정 예배

예배로 부름 (시편 1편 1-3절) / 인도자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찬 송 /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 도 / 말은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둔 밤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소서
밤을 살지만, 그래도 가장 밝은 밤, 추석에
엮드려 기도하고 잔치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덮으소서
내일이면 다시 이울어가는 달 아래,
어두운 세상 살아갈 어른과 청년과 아이와 함께 하소서
어른의 깊은 주름으로 씨앗을 품게 하소서

청년의 굵은 뼈로 거악에 맞서게 하소서
아이의 맑은 숨으로 사람을 거둬나게 하소서
빛이 없어 휘청거리는 세상에서
휘영청 환한 빛으로 되살아나게 하소서
흑암 속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추석, 밝은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빛으로 창조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준 목사 / 민들레와 달팽이**

성경말씀 / 마태복음 14장 34-36절

- 34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 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 36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설 교 /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 (뒷면)

축복과 덕담 / 다함께

<먼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세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해주시고, 형제, 자매간에 사랑의 인사로 축복합시다.>

주 기 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밤에 제자들은 민망한 일을 겪었습니다. 밤 기도를 마치고 바다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14:26)라고 소리친 것이지요. 매일 같이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을 몰라본 것도 모자라, 유령인 줄 착각해 겁먹은 채 벌벌 떨었으니,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머쓱한 새벽 밤을 지내고 서로의 붉어진 얼굴이 조금 가라앉을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처 지역에서 건넌 소식만 들었을 뿐,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게네사렛 사람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오랫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던 이웃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눈앞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벽 바다가 너무 어두웠던 탓일 수도 있고 그 바다 위를 걷는 스승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과 익숙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마치 유령과도 같았던 것이지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었기에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게네사렛 땅에 도착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게네사렛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평온함과 익숙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 상황에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민함과 절박함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한 자리에 모인 가족, 친척,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혹은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려보아도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집중한 나머지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이야기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았나요? 익숙함에 안주한 나머지 가족(친구)들의 낯선 모습에 눈을 감아버리진 않았나요? 이번 추석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깊이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문

*** 가정에배란 ***

전통적인 제사는 고인이 된 조상에게 드려졌지만, 명절 가정 예배는 우리 조상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족 간에 더 깊은 사랑과 우애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한국의독교 장로회 모슬포 교회
담임목사 손재운